

‘국제 농업박람회’ 도약 청신호

농업박람회 성료...5일간 48만명 관람
870만불 수출계약·330억원 소득창출

전남도가 주최하는 '2012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그린(Green)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를 주제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48만명의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들이 찾아왔으며 해외 바이어와 870만달러 수출계약과 국내 유통업체와 친환경농산물 205억원 구매계약 등 330여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예년보다 기간과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농업의 다양성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2012 국제 농업박람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일본 등 7개국 13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전북·과프리카·천일염 등 87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205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약정도 성사시켰다.

또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매일 1억원 이상씩 판매하는 등 향토음식 장터와 농자재·농기계 전시관 등을 통해 모두 330여억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해를 거듭하며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전남도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이끄는 최대 농업이벤트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농업박람회는 2002년 '남도 농업박람회'로 시작됐다가 3회 때 전국대회로, 4회 때인 2005년부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오는 2012년에는 국제대회로 승격돼 치러진다.

농산물 관측역과 관람객수 역시 개최 첫해인 지난 2002년에는 5천 100만명(3만2천명)에 불과했으나 4회 박람회에서는 261억원(75만명), 지난해에는 264억원(78만명)으로 경증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287억원을 투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누에생태관'외벽에 5만여 개의 누에고치를 염색해 만든 '달려라 F1'이란 제목의 대형 자동차 모자이크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입해 오는 2012년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국제 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제농업박

람회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박람회추진 조례를 제정함에 이어 재단법인 설립,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국비확보,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시·행사 프로그램개발 등 체계적인 박람회추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박람회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2012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아직은 힘겨루기중?

북미, 양자접촉 없이 샌디에이고 회의 끝내

북한과 미국이 26, 27일 이틀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 대화(NEACD)'에 나란히 참가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별도의 양자 접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북한이 샌디에이고 회의에서 의미 있는 양자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탐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6자회담 관련 당사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화물선-日 전함 충돌 27일 오후 8시께 일본 후쿠오카현 간몬 해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리마'(5천200t)와 한국 국적 화물선 '카리나스타'(7천400t)가 충돌하면서 양측 선박에 화재가 발생, 4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공군 탄약고 이전 요청 백지화하라”

대책위, 광주시장에 촉구...軍공항 이전 힘 모아야

공군탄약고 광주공항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탄약고 이전은 공군 전투기부대의 영구적 광주 존치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광주시장은 국방부에 요청한 탄약고 이전 요청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U대회 시설부지로 이용한다는

명분 아래 광주시 서구 마북동·벽진동에 위치한 공군탄약고를 광산구도호동 일대로 이전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이는 영구적으로 공군전투기부대 광주 존치를 묵인해 주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서구와 광산구 지역 70만 주민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50년 동안 군 공항 이전만을 염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을 외면하고 세계 대학생들의 일회성 대회를 위해 탄약고 이전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진권과 평등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탄약고 이전 논의는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광주 현안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공군에 탄약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15 하계 U대회 유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빛고을” 상표권 돌려달라”

광주시 “개인 독점 안돼” 법적 절차 돌입

광주시가 광주를 대표하는 용어인 ‘빛고을’의 상표권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28일 광주시는 “서울의 A씨가 보유중인 빛고을 상표등록권을 무효화해달라는 무효심판을 30일 대전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대전에 있는 G2B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

시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특허청에 ‘빛고을’ 상표등록을 마친 A씨가 ‘빛고을’이란 간판을 내건 광주 한 음식점 업주에게 ‘빛고을’ 문구를 삭제하라는 안내장을 보내 상표사용에 따른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비스업과 임시숙박업

에서 ‘빛고을’이란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는 광주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한글명칭인 빛고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표권을 금전적인 이익창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표 등록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또 자치단체로서 ‘빛고을’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과 현재 빛고을을 상호로 사용하는 업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감안됐다.

현재 A씨를 포함해 23명이 각종 분야에서 ‘빛고을’이란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국시·도의장 “지방채 이자 정부가 부담해야”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28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채 상환이자 정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갖고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정부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경기침체로 지방채 수입과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었는데 불구하고 정부 재정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되레 증가했다”며 “특히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로 대부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올 한해동안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6조8천23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스타는 죽어서도 ‘돈방석에’

마이클 잭슨 사후 4개월만에 1천억 벌어

지난 6월 25일 세상을 떠난 가수 마이클 잭슨이 4개월동안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9천만 달러(한화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7일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유명인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세상을 떠나고서 3억5천만 달러의 연소득을 올린 ‘패션혁명가’인 프랑스의 디

자이너 이브 생로랑이 ‘사후갑부’ 1위를 차지했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콤비가 1년간 2억3천 5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마이클 잭슨은 9천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팍의 황제’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평 가을의 국화향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 2009. 10. 29 [목] ~ 11. 22 [일]

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함평군